

제 1 교시

수능 국어 희파

출수형

[음 운]

1. 다음 ㄱ~ㄹ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4년 7월 A형 12번, 66%]

- ㄱ. 꽃[꼇], 앞[압]
- ㄴ. 맨입[맨닙], 담요[담 : 뇨]
- ㄷ. 안다[안 : 따], 탁구[탁꾸]
- ㄹ. 낳다[나 : 타], 오+아서 →와서[와서]

- ① ㄱ과 ㄴ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홀이불 → [훈니불]'을 들 수 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 ③ ㄱ과 ㄷ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엎다 → [업따]'를 들 수 있다.
- ④ ㄹ의 [나 : 타]는 자음 축약에, [와서]는 모음 축약에 해당된다.
- ⑤ ㄹ의 [와서]와 같은 예로 '집에 가아 → 집에 가[가]'를 들 수 있다.

2. 다음은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3년 4월 A/B형 12번, 65%]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 자음 동화
자음 동화에는, 자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와 자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있다. '국물[궁물]'은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의 사례이며, '난리[날리]'는 'ㄴ'이 'ㄹ'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의 사례이다.

선생님의 설명

'음운의 첨가란 원래는 없던 소리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맨입으로는 알려 줄 수 없다.'에서 '맨입'은 '[맨닙]'으로 발음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아,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첫 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기 때문이지요. 또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 ㄹ'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됩니다. 이때에는 '뒷문[뒨문]'의 경우처럼 앞말에 사이시옷('ㅅ')을 넣어서 이를 표시해 준답니다.

< 보 기 >

ㄱ. 그는 날렵한 ㉠ 콧날[콘날]이 매우 인상적이다.
 ㄴ. 나는 아끼던 ㉡ 색연필[생년필]을 잃어버려 속이 상했다.
 ㄷ. 그 사람은 회사의 ㉢ 막일[망닐]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ㄹ. 아이가 아직 알약을 먹지 못해서 ㉣ 물약[물략]을 지어갔다.
 ㅁ. 그녀는 ㉤ 잇물[인물]이 약해져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 ① ㉠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되는 합성어이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② ㉡에서 'ㄴ' 소리가 첨가된 이유는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여'로 시작하는 합성어이기 때문이군.
- ③ ㉢는 'ㄴ' 소리가 첨가된 후, 'ㄹ'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④ ㉣는 'ㄴ' 소리가 첨가되어 '[물낙]'으로 바뀐 후, 'ㄹ'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⑤ ㉤는 사이시옷을 넣어서 'ㄴ' 소리가 첨가됨을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3.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018년 4월 11번, 65%]

< 보 기 >

음운의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으로 구분된다. 한 단어가 발음될 때 이 네 가지 변동 중 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음운이 두 번 이상의 음운 변동을 겪기도 한다.

- ㉠ 날날이→[난 : 나치]
- ㉡ 뉘두리→[뉴뚜리]
- ㉢ 입학식→[이팍씩]
- ㉣ 첫여름→[천너름]

- ① ㉠과 ㉡에서는 공통적으로 음운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② ㉠과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은 탈락이다.
- ③ ㉠에서 발음된 'ㄷ'과 ㉢에서 발음된 'ㄹ'은 공통적으로 음운이 축약된 것이다.
- ④ ㉠에서 'ㄷ'이 'ㄴ'으로, ㉡에서 'ㅌ'이 'ㄴ'으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음운 교체의 횟수는 같다.
- ⑤ ㉢에서 'ㄱ'이 'ㄱ'으로, ㉣에서 'ㅌ'이 'ㅍ'으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횟수는 다르다.

4.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2019년 7월 12번, 58%]

< 보 기 >

국어에서 'ㄴ'과 'ㄹ' 소리를 연달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ㄹ'과 'ㄴ'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고, 반대로 'ㄴ'과 'ㄹ'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순행적 유음화나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용언의 활용이나 합성어,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순행적 유음화가 아닌 'ㄹ' 탈락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행적 유음화가 아닌 ㉡ 'ㄹ'의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 | | |
|-------|-----|
| ㉠ | ㉡ |
| ① 산란기 | 표현력 |
| ② 줄넘기 | 입원료 |
| ③ 결단력 | 생산량 |
| ④ 의견란 | 향신료 |
| ⑤ 대관령 | 물난리 |

[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는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음운 변동들이 있다. 가령 '국'과 '물'은 따로 발음하면 제 소리대로 [국]과 [물]로 발음되지만, '국물'처럼 'ㄱ'과 'ㄹ'을 연달아 발음하게 되면

예외 없이 비음화가 일어나 'ㄱ'이 [ㅇ]으로 바뀐다. 이것은 국어에서 장애음*과 비음을 자연스럽게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일어나는 현상이다. '국화[구화]', '좋다[조 : 타]'처럼 예사소리와 'ㅎ'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현상도 국어에서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운 자음들이 이어질 때 발생하는 음운 변동으로 볼 수 있다. 비음화와 자음 축약은 장애음 뒤에 비음이 이어질 때, 'ㅎ'의 앞이나 뒤에서 예사소리가 이어질 때와 같이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

국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를 살펴보면, 예사소리인 파열음 'ㅂ, ㄸ, ㄱ' 뒤에 예사소리 'ㅂ, ㄸ, ㄱ, ㅅ, ㅈ'이 연달아 발음되기 어려워,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반드시 된소리로 바뀐다. 예를 들면, '국밥'은 반드시 [국뽵]으로 발음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필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갑짜기]로 발음되는 단어를 '갑자기'로 표기하더라도 발음할 때에는 예외 없이 [갑짜기]가 된다.

한편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된소리되기가 존재한다. '(신을) 신고'가 [신 : 꼬]로 발음되는 것처럼, 용언의 어간이 비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어미가 예사소리로 시작하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그런데 명사인 '신고(申告)'는 [신고]로 발음되듯이, 국어의 자연스러운 발음에서 비음과 예사소리는 그대로 발음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운과 관련된 조건뿐만 아니라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것과 같은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까지 알아야 한다.

국어의 규칙적인 음운 변동 중에는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것도 있고,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난 발음들은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장애음 : 구강 통로가 폐쇄되거나 마찰이 생겨서 나는 소리. 일반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큰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을 이룸.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2018년 3월 11번, 45%]

< 보 기 >

- ㉠ 집넌[짐넌]도 강하다.
- 춤을 ㉡ 곧잘[곧잘] 춘다.
- 책상에 ㉢ 놓고[노코] 가라.
- 음식을 ㉣ 달기[담 : 끼]가 힘들다.
- 모기한테 ㉤ 뜯긴[뜯긴] 모양이다.

- ① ㉠과 ㉡에서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이어져 나타나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과 ㉢에서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을 제 소리대로 연달아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③ ㉠과 ㉢은 발음될 때,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과 ㉤은 발음될 때,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조건이 음운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⑤ ㉠과 ㉢은 발음될 때,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바뀐다.

6.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2016년 3월 11번, 29%]

< 보 기 >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낫다'와 '낱다'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 생: 둘 다 음운의 (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가) 현상이 일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낫다'와 '낱다'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표기 반영 여부 활용 유형	반영	미반영
규칙 활용	㉠	㉡
불규칙 활용	㉢	

학 생: '낫다'는 (나), '낱다'는 (다)에 해당됩니다.

- | | | | |
|---|-----|-----|-----|
| | (가) | (나) | (다) |
| ① | 축약 | ㉠ | ㉢ |
| ② | 탈락 | ㉡ | ㉠ |
| ③ | 탈락 | ㉢ | ㉡ |
| ④ | 교체 | ㉡ | ㉢ |
| ⑤ | 교체 | ㉢ | ㉡ |

[단 어]

7. <보기>의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예문의 단어를 분류해 보았다. 적용한 기준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 [3점]

[2013년 3월 A형 12번, 69%]

< 보 기 >

- 품사 분류 기준
 - 형태에 따라: 가변어, 불변어
 -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 예문
 - 호수가 깊다.
 - 강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기준	분류 (※는 분류의 경계를 표시함.)
① 형태	깊다, 깊이 호수, 가, 강, 의, 는, 누구, 도, 모르다
② 기능	깊다, 모르다 호수, 강, 깊이 누구 가, 의 는, 도
③ 기능	깊다, 모르다 호수, 강, 깊이, 누구 가, 의, 는, 도
④ 의미	깊다, 깊이 모르다 호수, 강 누구 가, 의, 는, 도
⑤ 의미	깊다 깊이 모르다 호수 강 누구 가 의 는 도

8.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년 4월 15번, 69%]

< 보 기 1 >

보조 용언도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본용언에 조사가 붙거나 본용언이 합성 용언인 경우,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붙여 쓰지 않는다. 그런데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그 활용형이 2음절인 경우에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리고 본용언 뒤에 보조 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본용언에 붙여 쓸 수 있다.

- < 보 기 2 >
- 그가 이 자리를 ㉠ **빛내** 준다.
 - 오늘 일은 일기에 ㉡ **적어** 둘 만 하다.
 - 나는 어제 그 책을 ㉢ **읽어**는 보았다.
 - 아마도 이런 기회는 ㉣ **다시없을** 듯하다.
 - 이번에는 제발 열심히 ㉤ **공부해** 보아라.

- ① ㉠은 본용언이 합성어이지만 활용형이 2음절인 경우이므로 '빛내'와 '준다'를 붙여 쓸 수 있다.
- ② ㉡은 본용언 뒤에 보조 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이므로 '둘'과 '만하다'를 붙여 쓸 수 있다.
- ③ ㉢은 본용언에 조사가 붙은 경우이므로 '읽어'와 '보았다'를 붙여 쓰지 않는다.
- ④ ㉣은 본용언이 합성 용언인 경우이므로 '다시없을'과 '듯하다'를 붙여 쓰지 않는다.
- ⑤ ㉤은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이므로 '공부해'와 '보아라'를 붙여 쓰지 않는다.

9.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6년 7월 12번, 66%]

< 보 기 >

국어의 조사 중에는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하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와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가 있다.

- ① '국수라도 관도 먹으렴.'에서의 관도
- ② '영애야 철수가 도사지.'에서의 야
- ③ '그 과자를 먹어는 보았다.'에서의 는
- ④ '일을 빨리만 하면 안 된다.'에서의 만
- ⑤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다.'에서의 처럼

10. <보기>는 사전 자료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년 10월 15번, 64%]

< 보 기 >

크다 [커, 크니]
 [I]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예] 키가 크다.
 [II] 동사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예]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

키우다 [...을] [키우어(키워), 키우니]
 크다 [II]의 사동사

- ① '크다[I]와 '크다[II]는 별도의 품사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이겠군.
- ② '크다[I]와 '크다[II]의 반의어로는 모두 '작다'가 가능하겠군.
- ③ '크다[I]의 용례로 '키가 몰라보게 컸구나.'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크다[II]는 사동사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는군.
- ⑤ '크다'와 '키우다'는 모두 어미 '-어'가 결합하면 어간 끝의 모음이 탈락하는군.

13. <보기>의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년 3월 13번, 63%]

< 보 기 >

선생님 : 지난 시간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공부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에서 ㉠, ㉡, ㉢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자료]

- 이 문제는 나한테 묻지 말고 그에게 물어라. ㉠
- 귀로는 음악을 들었고 눈으로는 풍경을 보았다. ㉡
- 나는 산으로 가자고 했지만 동생은 바다로 갔다. ㉢

- ①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② 공통점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만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 ③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④ 공통점은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⑤ 공통점은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14.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2020년 4월 14번, 63%]

< 보 기 1 >

용언의 활용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모습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불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이유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불규칙 활용에는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 보 기 2 >

-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 옷에 흙이 묻었다.
- 나는 동생에게 출발 시간을 일러 주었다.
- 우리는 한라산 정상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 드디어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섬기게 되었다.
- 하늘은 맑고 강물은 파래 기분이 정말 상쾌했다.

	㉠	㉡	㉢	㉣
①	묻었다	이르러	일러, 우러러	파래
②	일러	이르러, 파래	묻었다	우러러
③	이르러	묻었다, 우러러	파래	일러
④	묻었다, 우러러	일러	이르러	파래
⑤	일러, 우러러	묻었다	파래	이르러

15. <보기>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다. ㉠에 해당 하는 것은?

[2013년 4월 A/B형 13번, 61%]

< 보 기 >

용언의 활용에서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불규칙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어간만 바뀌는 경우

<예시>	어간	어미의 기본형태	
	견-	+ -고	→ 견고
		+ -아/어	→ 걸어
		+ -아라/어라	→ 걸어라
		⋮	

• 어미만 바뀌는 경우

<예시>	어간	어미의 기본형태	
	이르(至)-	+ -고	→ 이르고
		+ -아/어	→ 이르러
		+ -아서/어서	→ 이르러서
		⋮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

- ① 사람들을 빨리 불러 오너라.
- ② 하늘이 파래서 기분이 좋다.
- ③ 그런 식으로 말을 지어 내지 마라.
- ④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 보라.
- 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자.

16.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2015년 7월 12번, 60%]

<보기 1>

수관형사는 수사와 형태가 같은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쉽다. 문장에서 둘 다 활용을 하지 않고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지만, 수관형사는 수사와 달리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와 함께 쓰인다는 차이가 있다.

- 이 일을 마치는 데에 ㉠ **칠** 개월 걸렸다. (수관형사)
- 육에 일을 더하면 **칠**이다. (수사)

<보기 2>

- 명호는 바둑을 ㉡ **다섯** 판이나 두었다.
- 윤배가 고향을 떠난 지 ㉢ **팔** 년이 지났다.
- 은주는 시장에서 토마토를 ㉣ **하나** 사 왔다.
- 현수는 달리기 시험에서 ㉤ **셋째**로 들어왔다.

- | | |
|--------|--------|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⑤ ㉢, ㉣ |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들을 모아 갈래 지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국어의 품사는 단어의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첫째, 단어는 형태 변화의 여부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인 불변어와, 활용하여 형태가 변하는 말인 가변어로 나뉜다. 둘째, 단어는 문장 속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문장에서 주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관계언,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으로 나뉜다. 셋째, 단어는 개별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대명사,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주로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 주는 부사, 앞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조사, 말하는 이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나뉜다.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그는 모든 원인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렸다.'의 '잘못'은 조사와 결합하는 명사이지만, '그는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헤맸다.'의 '잘못'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잘못'이 명사와 부사로 쓰인 것이다. 또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의 '만큼'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지만,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만큼'이 명사와 조사로 쓰인 것이다. 이 밖에도 국어에는 부사와 조사로 쓰이는 경우, 수사와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와 같이 두 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이 존재한다.

17. [A]를 바탕으로 <보기>의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7년 7월 13번, 60%]

< 보 기 >

- ㉠ 아직까지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 ㉡ 할머니께서 온갖 재료로 만두를 곱게 빚으셨다.
- ㉢ (대화 중) “들어가도 됩니까?” / “네, 어서 오십시오.”

- ① ㉠에서 '아무'는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이다.
- ② ㉡에서 '온갖'은 문장에서 다른 말을 수식하는 수식언이다.
- ③ ㉢에서 '네'는 말하는 이의 응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④ ㉠와 ㉡에서 조사는 각각 3개씩이다.
- ⑤ ㉠와 ㉡에서 가변어는 각각 2개씩이다.

18. 사진 자료의 일부인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쓰임을 탐구한 학습지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9년 3월 14번, 58%]

< 보 기 >

-ㄴ- 「어미」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간다.

-ㄹ- 「어미」
①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 또는 말하는 이가 상정한 기준 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 이것은 털실로 짠 옷이다.
②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
¶ 누나는 유명한 성악가이다.

[학습지]

각 질문에 대해 '예'는 ○, '아니오'는 ×로 표시하십시오.

질문	-ㄴ-	-ㄹ-		
		①	②	
○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 있는가?	○	×	×	...㉠
○ 어미 '-(으)시-' 뒤에 붙을 수 있는가?	○	○	○	...㉡
○ 어간에 붙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가?	×	○	○	...㉢
○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가?	○	×	○	...㉣
○ 예문으로 '흰 눈이 내립니다.'를 추가할 수 있는가?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다음은 '달다'에 관한 사전 자료의 일부분이다. 이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년 3월 14번, 56%]

< 보 기 >

달다¹ ㉠ 【…에 …을】 [달아, 다니, 다오]
 ㉠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매어 놓다.
 예 배에 돛을 달다.
 ㉡ 이름이나 제목 따위를 정하여 붙이다.
 예 작품에 제목을 달다.

달다² ㉢ [달아, 다니, 다오]
 ㉢ 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
 예 아이스크림이 달다.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 흙죽하여 기분이 좋다.
 예 나른한 식곤에 잠이 달았다.

- ① '달다'와 '달다'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 어에 해당하느군.
- ② '달다'와 '달다'는 모두 연결 어미 '-니'가 결합되면 '다니'로 활용되느군.
- ③ '달다' ㉠의 용례로 '소금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보았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달다' ㉠의 속담은 '달다'와 '쓰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군.
- ⑤ '달다' ㉡은 '달다' ㉢보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더 많군.

20. <보기>의 ㉠과 ㉡에 모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2018년 4월 12번, 55%]

< 보 기 >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거나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이런 결합 관계는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나기도 해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데 다시 접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데 다시 접사가 붙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접사가 결합되어 어근의 품사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

- ① 굳것질 ② 바느질 ③ 겹겹이 ④ 다듬이 ⑤ 헛웃음

21.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년 4월 A형 14번, 53%]

< 보 기 >

동음이의(同音異義) 관계에 있는 용언들은, 그 기본형은 같지만 다양한 어미를 결합시켜 활용을 해 보면 하나는 규칙, 다른 하나는 불규칙 활용을 함으로써 두 용언의 활용 형태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음이의 관계의 두 용언이 각각 서로 다른 단어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① 친구가 병이 났다.
 동생이 형보다 인물이 났다.
- ② 벽에 바른 벽지가 올다.
 시험에 진 어린이가 올다.
- ③ 소나무가 마당 쪽으로 굽다.
 어머니께서 빵을 굽다.
- ④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이르다.
 약속 장소에 이르다.
- ⑤ 장작이 벽난로에서 타다.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다.

22. 밑줄 친 말 가운데 <보기>의 [A]의 사례로 추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년 3월 12번, 53%]

< 보 기 >

합성어의 품사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의 품사와 관계없이 새로운 품사가 되기도 하지만, [A] 일차적으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했을 때 맨 끝 구성 성분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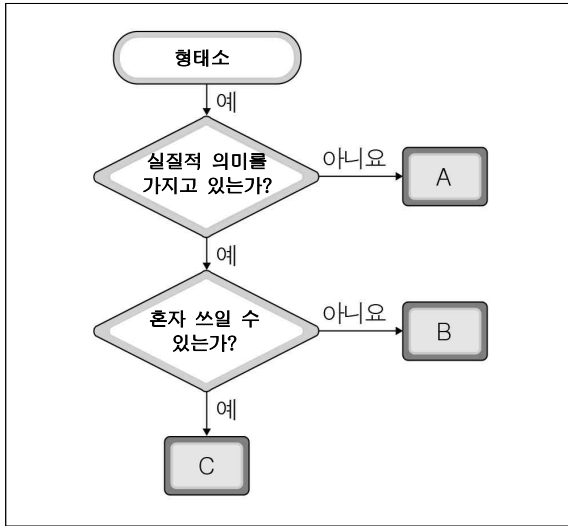
단어	직접 구성 성분 분석	단어의 품사
큰집	큰(형용사) + 집(명사)	명사
본받다	본(명사) + 받다(동사)	동사
⋮	⋮	⋮

* 직접 구성 성분 : 어떤 언어 단위를 층위를 두고 분석할 때 일차적으로 분석되어 나오는 성분.

- ① 입학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3학년이구나.
- ② 그는 농구는 몰라도 축구 실력만큼은 날달랐다.
- ③ 아침에 늦잠이 들어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다.
- ④ 길을 가는데 낯선 사람이 앞으척을 했다.
- ⑤ 하루빨리 여름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23. 다음의 탐구 과정에 따라 <보기>의 ㉠~㉣을 분류하고자 한다. A~C에 해당하는 사례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2013년 4월 11번, 52%]



< 보 기 >

복두칠성은 ㉠어느 계절에나 북쪽 밤하늘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복두칠성을 흔히 국자㉢에 비유하는데, 그것이 국자라면 국을 쏟을 때 국이 흐를 마지막 두 별을 잇㉣는 직선 상에 있는 별 중 가장 밝고, 두 별의 간격의 다섯 배쯤에 있는 별을 발견할 것이다. 그 ㉢자리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밤하늘의 북극성이다.

- | | A | B | C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2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년 7월 A형 11번, 52%]

고르다¹ 𠵵 (골라, 고르니)

- ㉠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 ¶ 땅을 고르다.
- ㉡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 ¶ 붓을 고르다.

고르다² 𠵵 (골라, 고르니)

- ㉢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 이익을 고르게 분배하다.
- ㉣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 ¶ 숨소리가 고르다.

- ① '고르다1 ㉠'의 용례 '땅을 고르다'에서 '고르다'의 유의어로는 '메우다'가 가능하겠군.
- ② '고르다2 ㉡'의 용례로 '방바닥이 고르지 않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고르다2 ㉣'의 용례 '숨소리가 고르다'에서 '고르다'의 반의어로는 '거칠다'가 가능하겠군.
- ④ '고르다1', '고르다2'의 활용 정보에 '골라', '고르니'로 나타난 것을 보니 불규칙 용언이겠군.
- ⑤ '고르다1', '고르다2'의 품사 표시를 보니, '악기의 줄을 고르다'의 '고르다'는 동사, '치아가 고르다'의 '고르다'는 형용사이겠군.

25. 다음은 '사건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6년 7월 14번, 51%]

이르다¹ [이르러, 이르니] ㉠ […에]

- ①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달다. ㉠목적지에 이르다
- ②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결론에 이르다

이르다² [일러, 이르니] ㉡

- ① […에게 …을] […에게 -고] 무엇이라고 말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일러 주었다. ㉡아이들에게 주의하라고 이르다.
- ② […을 -고]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한다. ㉡이를 도루묵이라 이른다.

이르다³ [일러, 이르니] ㉢ […보다] [-기에]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 ㉢그는 어느 때보다 이르게 학교에 도착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 ① '이르다¹'과 '이르다²'의 유의어로 '다다르다'가 있겠군.
- ② '이르다¹'과 '이르다²'와 '이르다³'은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겠군.
- ③ '이르다¹'은 규칙 활용을 하지만 '이르다²'와 '이르다³'은 불규칙 활용을 하겠군.
- ④ '이르다¹'과 '이르다²'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이르다³'은 성질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겠군.
- ⑤ '이르다³'의 용례로 '올해는 예년보다 첫눈이 이른 감이 있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26. <보기>의 '뜨개질'과 단어의 구조가 동일한 것은?

[2013년 10월 A형 13번, 40%]

< 보 기 >

'뜨개질'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어근 + 접미사 + 접미사'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동일한 층위에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즉, 어근 '뜨-'에 접미사 '-개'가 붙어 먼저 '뜨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시 접미사 '-질'이 붙어 '뜨개질'이 된 것이다. 따라서 '뜨개질'은 '(어근 + 접미사) + 접미사'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 ① 싸움꾼 ② 군것질 ③ 놀이터
- ④ 병마개 ⑤ 미닫이

27.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년 10월 14번, 27%]

< 보 기 >

ㄱ. 그곳에서는 빵을 아주 쉽게 구울 수 있다.
 ㄴ. 그 사람은 자기가 잠을 잘 잤다고 말했다.
 ㄷ. 멋진 형이 근처 식당에서 밥을 지어 왔다.

- ① ㄱ의 '그곳'과 ㄴ의 '그'는 어떤 처소나 대상을 지시하는 대명사이다.
- ② ㄱ의 '아주'와 ㄴ의 '잘'은 용언 앞에 놓여서 그 뜻을 한정하는 부사이다.
- ③ ㄱ의 '구울'과 ㄷ의 '지어'는 용언의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활용되는 동사이다.
- ④ ㄱ의 '쉽게'와 ㄷ의 '멋진'은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⑤ ㄴ의 '가'와 ㄷ의 '에서'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문 장]

28. <보기>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년 3월 A형 13번, 68%]

< 보 기 >

점원 : 손님, 어떤 옷을 ㉠ 찾으십니까?
 손님 : 셔츠를 좀 보려고요. ㉡ 저희 아버지께서 입으실 거거든요.
 점원 : 이 셔츠는 어떠세요? 선물로 ㉢ 드리시면 무척 좋아하실 겁니다.
 손님 : 저희 아버지는 ㉣ 어깨가 넓으신데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
 점원 : 그러시면 ㉤ 어르신을 모시고 한번 들려 주세요.

- ① ㉠: '-니까'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 ② ㉡: '저희'라는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 '-시-'를 사용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 '드리다'를 사용해서 선물을 받는 사람과 동시에 높이고 있다.
- ④ ㉣: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그 신체의 일부가 주어로 올 때도 높임 표현을 쓰고 있다.
- ⑤ ㉤: 높임을 나타내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주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년 10월 A형 14번, 67%]

< 보 기 >

지난 토요일에 ㉠ 사촌 동생이 왔다. 뭘 할까 고민하다 ㉡ 사촌 동생에게 미술관에 가자고 했다. ㉢ 지하철이 있었지만, 한 정거장이라 걸어가기로 했다.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하시며 ㉣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다. 건다 생각해 보니, ㉤ 우리가 함께 노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다들 바빠서인지 ㉥ 친척도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 ① ㉠, ㉡, ㉢을 보니, 주어는 '무엇이 어찌한다/어떠하다'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주격 조사의 형태가 달라지는군.
- ③ ㉢을 보니, 문맥상 주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주어 가 생략되기도 하는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가'가 주격 조사로 쓰이는군.
- ⑤ ㉥을 보니, 체언뿐 아니라 명사절도 주어 가 될 수 있군.

30.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을 만들어 보았다. 잘못된 것은? [3점]

[2014년 3월 A형 13번, 66%]

< 보 기 >

피동 표현은 피동 접미사 '-아-, -히-, -리-, -기-'에 의한 피동과 '-되다', '-게 되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이 외에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이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 ① '아이가 밥을 먹었다.'를 피동 접미사 '-이-'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밥을 먹었다.'로 바꾸었다.
- ② '아이들이 꼬마를 놀렸다.'를 '당하다'를 사용하여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로 바꾸었다.
- ③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를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여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로 바꾸었다.
- ④ '사람들이 생태계를 파괴하였다.'를 '-되다'를 사용하여 '생태계가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됐다.'로 바꾸었다.
- ⑤ '박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를 '-어지다'를 사용하여 '이 영화는 박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로 바꾸었다.

[3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 국어에서는 주체나 객체로 표현되는 인물이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경우, 대개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여 표현하였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현대 국어의 간접 높임에서처럼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을 높임으로써 실제 높여야 할 인물을 간접적으로 높이기도 하였다.

- (1) 太子(태자) | 東門(동문) 밖과 나가시니
(태자께서 동문 밖에 나가시니)
- (2) 부텃 누니 비록 불그시나
(부처의 눈이 비록 밝으시나)

(1)의 '-시-'와 (2)의 '-으시-'는 모두 현대 국어의 '-(으)시-'처럼 주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이다. 그러나 (1)과 (2)에 쓰인 '-(으)시-'의 쓰임에는 차이가 있다. 즉 (1)에서는 주체인 '太子(태자)'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2)에서는 '부텃'의 신체 부분인 '눈'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임으로써 실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인 '부텃'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편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모시다', '뵙다' 등의 특수 어휘를 활용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였다.

- (3) 너희 스승을 보습고져 호노니
(너희 스승을 뵙고자 하니)
- (4) 부텃 教化(교화)를 돌습고
(부처의 교화를 돕고)

(3)의 '-습-'과 (4)의 '-습-'은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3)과 (4)는 모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이느냐 간접적으로 높이느냐에 차이가 있다. 즉 (3)에서 '-습-'은 객체인 '스승'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데 비해, (4)에서 '-습-'은 '教化(교화)'를 높임으로써 실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인 '부터'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31. 다음은 윗글과 관련된 [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학생 2'의 분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년 10월 15년, 66%]



[활동] 문맥을 고려하여 ㉠~㉤에 사용된 '높임 표현'을 기준을 세워 분류하시오.

- 우리 할아버지의 치아는 여전히 ㉠ 튼튼하시다.
- 언니가 고모님을 공손하게 인방으로 ㉡ 모시다.
- 아버지께서는 저녁거리를 사러 장에 ㉢ 가시다.
- 형님께서 부르신 그분의 생각이 ㉣ 타당하시다.

학생 1



나는 '㉡, ㉢', '㉠, ㉣'의 두 부류로 나누어 봤어.

나는 '㉡'와 '㉠, ㉢, ㉣, ㉣'의 두 부류로 나누어 봤어.



학생 2

- ① 소유물을 높인 표현이 사용되는가의 여부
- ② 높임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이는가의 여부
- ③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는가의 여부
- ④ 신체 부분을 높인 표현이 사용되는가의 여부
- 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활용되는가의 여부

32.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년 4월 13년, 66%]

< 보 기 >

선생님: 오늘은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는 서술어 자릿수가 변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 문장들을 살펴봅시다.

- ㉠ 얼음이 매우 빠르게 녹았다.
- ㉡ 아이들이 얼음을 빠르게 녹였다.
- ㉢ 사람들은 산을 멀리서 보았다.
- ㉣ 그 산이 잘 보였다.

- ① ㉠은 피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
- ② ㉡은 사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
- ③ ㉢은 피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다르다.
- ④ ㉣은 사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
- ⑤ ㉤은 사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다르다.

33. <보기>의 ㉠~㉤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년 10월 13년, 64%]

< 보 기 >

결석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 할 지 모르는 나에게 승호는 필기한 공책을 ㉡ 주고 갔다. 승호는 역시 듣직한 ㉢ 형같다. 이제 내가 심혈을 ㉣ 기울일것은 ㉤ 공부 뿐이다.

- ① ㉠: '-르지'가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할'과 '지'를 붙여 '할지'로 수정한다.
- ② ㉡: '갔다' 본동사이기 때문에 '주고'와 '갔다'를 붙여 '주고갔다'로 수정한다.
- ③ ㉢: '같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과 띄어 '형 같다'로 수정한다.
- ④ ㉣: '것'이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기울일'과 띄어 '기울일 것'으로 수정한다.
- ⑤ ㉤: '뿐'이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공부'와 붙여 '공부뿐이다'로 수정한다.

34. <보기>는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은 문장 유형 중 일부이다. <보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6년 3월 15번, 60%]

< 보 기 >

-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연결어미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과도한 피동이 된 경우
- 목적어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잘못 생략된 경우

- ① 고등학생이라면 모름지기 그 정도는 다 할 줄 안다.
- ②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
- ③ 그 복지 시설은 지금 민간에 위탁 운영되어지고 있다.
- ④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듣는다.
- ⑤ 이것은 어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생신 선물로 드린 것이다.

35. 다음 ㄱ~ㄹ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5년 7월 A형 13번, 58%]

- ㄱ. 그가 마침내 대학생이 되었다.
- ㄴ. 이 전시장은 창문이 아주 많다.
- ㄷ.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 ㄹ. 절약은 부자를 만들고, 절제는 사람을 만든다.

- ① ㄱ은 보어가 있고, ㄷ은 보어가 없다.
- ② ㄴ은 목적어가 없고, ㄹ은 목적어가 있다.
- ③ ㄱ과 ㄴ은 부사어가 있고, ㄷ과 ㄹ은 부사어가 없다.
- ④ ㄱ과 ㄴ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고, ㄷ과 ㄹ은 두 번 이상 나타난다.
- ⑤ ㄷ은 절이 전체 문장 속에 안겨 있고, ㄹ은 두 개의 절이 대등한 관계로 이어져 있다.

36.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년 3월 B형 13번, 56%]

< 보 기 >

문장을 어법에 어긋나거나 부자연스럽게 사용한 대표적 유형으로는,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 ㉣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 ㉤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 등이 있다.

- ①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행동하자.
- ② ㉡: 새벽에 잠을 껴 사람은 비단 나뭇잎이었다.
- ③ ㉢: 나는 집에 오자마자 들고 있던 가방을 두었다.
- ④ ㉣: 새로 산 자동차에 짐과 동생을 태우고 여행을 떠났다.
- ⑤ ㉤: 착한 너의 후배를 나한테 빨리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3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년 3월 15번, 56%]

< 보 기 >

- ㉡ 그 사람이 범인임이 확실히 밝혀졌다.
- ㉢ 부상을 당한 선수는 장애물 달리기를 포기하였다.
- ㉣ 학생들은 성적이 많이 오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 ① ㉡는 명사절 속에 관형어가 한 개 있다.
- ② ㉢에는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은 ㉡와 달리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⑤ ㉢과 ㉣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용언이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이다.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는 '-(으)ㄴ', '-는', '-(으)ㄹ' 등으로, 이들이 용언의 어간에 붙으면 관형절이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관형절은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분류된다.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속의 한 성분으로 쓰일 수 있으면 관계 관형절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격 관형절이다. 한편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문장의 종결 어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관형절과, 그렇지 않은 관형절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현대 국어에서처럼 관형절을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구분할 수 있다. 중세 국어의 대표적인 관형사형 어미는 '-(으/오)ㄴ'과 '-(으/오)ㄹ'로, 각각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관형절에서 현재 시

1) [국어사] 56번과 중복 지문

제는 동사의 경우 '-ㄴ-' 앞에 선어말 어미 '-ㄴ-'을 붙여 나타냈다. 예컨대 '八姦女の 기론'은 '八姦女(팔채녀가 길은 찻물이 모자라므로)'에서 '八姦女의 기론'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난 관계 관형절이고, '주글 짜르미어니(죽을 사람이니)'에서 '주글'은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난 관계 관형절이다. 그리고 '本來 求호는 모습 업다이(본래 구하는 마음 없었습니다)'에서 '本來 求호'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가 나타난 동격 관형절이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와 달리 '-ㄴ-'이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도 있었다. 곧 '-ㄴ-'이 붙은 절 뒤에 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없는 상태로, '그랏 혼 조초(그대 한 것 좇아)'에서 '그랏 혼'을 예로 들 수 있다. '혼'[ㅎ-+-오-+-ㄴ-]에서 선어말 어미 뒤에 쓰인 '-ㄴ-'은 '~ㄴ 것' 정도로 해석된다. 더 붙어 '威化 振旅호시노로(위화도에서 군대를 돌이킨 것으로)'에서처럼 명사절을 이끄는 '-ㄴ-' 뒤에 조사가 붙은 경우도 있었다. '호시노로'[ㅎ-+-시-+-ㄴ-+오로]는 '-ㄴ-' 바로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는 예이다.

38. 윗글을 근거로 <보기>의 ㉠~㉣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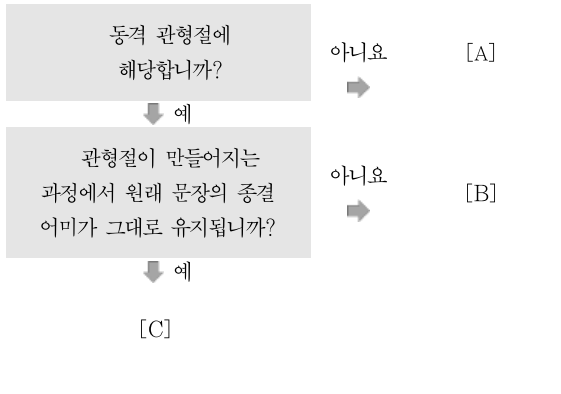
[2019년 10월 13번, 56%]

< 보 기 >

[탐구 자료]

- ㉠ 힉찬 함성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 누나는 ㉡ 자동차가 전복된 기억을 떠올렸다.
- 나는 ㉢ 형이 조사한 자료를 보고서에 인용했다.
- ㉣ 내가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변함없다.

[탐구 과정]



- | | | | |
|---|------|------|------|
| | [A] | [B] | [C]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39.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년 10월 13번, 51%]

학습 활동 : 어떠한 두 사건을 '-다가'나 '-아서/-어서'에 의해 연결할 때, 두 사건의 시제가 문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두 사건의 의미가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는지 (가)~(라)에서 살펴봅시다.

(가) 찌개를 먹다가 허를 데었다.
 (나) 찌개를 끓였다가 다시 식혔다.
 (다) 그는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라) 내가 문을 쾅 닫아서 동생이 잠을 깼다.

- ① (가)와 (나)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의 사건이 모두 과거에 일어났지만, (가)에는 (나)와 달리 '-다가'로 연결된 앞 절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났다.
- ② (가)와 (다)에서는 뒤 절의 시제가 과거임을 확인해야 '-다가'와 '-아서/-어서'가 쓰인 앞 절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
- ③ (가)와 (라)에서는 모든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는데도, '-다가'와 '-아서/-어서'가 쓰인 앞 절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어.
- ④ (나)와 (다)에서는 '-다가'와 '-아서/-어서'가 쓰인 앞 절의 사건이 끝난 후 뒤 절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 ⑤ (다)와 (라)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이 모두 '-아서/-어서'로 이어졌지만, (라)는 (다)와 달리 앞 절의 사건이 뒤 절의 사건의 원인이나 이유로 이해될 수 있어.

40.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17년 10월 11번, 48%]

- ㉠ 드디어 나도 일을 끝냈다.
- ㉡ 벌써 바깥이 칙흑같이 어둡다.
- ㉢ 신입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 ㉣ 새 컴퓨터가 순식간에 고물이 되었다.

- ① ㉠과 ㉡에서 주어는 명사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 ② ㉠과 ㉢에서 격조사가 문장의 주어에 나타내 주고 있다.
- ③ ㉡과 ㉣에서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이다.
- ④ ㉢과 ㉣에서 주어는 체언 구실을 하는 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 ⑤ ㉢에서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서술어의 영향으로 주어가 두 번 쓰였다.

41. <보기>의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년 7월 11번, 44%]

〈 보 기 〉

- ㉠ 담장이 낮다. → 동네 사람들이 담장을 낮춘다.
 - ㉡ 아이가 옷을 입었다. →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었다.
 - ㉢ 사람들이 방으로 이삿짐을 옮긴다.
 - ㉣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셨다 / 읽게 하셨다].
- ㉣ [아이가 웃는다. → 아빠가 아기를 웃긴다.
철수가 짐을 졌다. → 형이 철수에게 짐을 지웠다.

- ① ㉠: 형용사에 사동 접사가 결합되어 사동사가 되었군.
- ② ㉡: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지는군.
- ③ ㉢: 사동문 중에는 대응하는 주동문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군.
- ④ ㉣: 접사에 의한 사동 표현은 직접 사동의 의미로, '-게 하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간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되는군.
- ⑤ ㉣: 주동문의 서술어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그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군.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과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으로 나뉘는데, 겹문장에는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이 있다.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대등하게 혹은 종속적으로 결합된 문장을 말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 뒤 문장이 '나열', '대조' 등의 대등한 의미 관계를 가지며, '-고', '-지만' 등의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 조건, 목적 등의 의미를 가지며, '-아서 / -어서', '-(으)면', '-(으)려' 등의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다.

한 문장이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하는 다른 문장을 안고 있을 때 그것을 안은문장이라 하고, 이때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하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 한다. 안긴문장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명사절은 '-(으)ㄴ', '-(으)가' 붙어 만들어지며 문장 안에서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목적어, 부사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 관형절은 '-(으)ㄴ', '-는', '-(으)ㄴ' 등이 붙어 뒤의 체언을 꾸민다. 부사어처럼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부사절은 '-이', '-게', '-도록' 등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은 다른 절들과 달리 특별한 표지(標識)가 붙지 않는다. 끝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 등을 인용한 것을 인용절이라고 하는데,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직접 인용절에는 '라고'나 '하고'와 같은 조사가,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 인용하는 간접 인용절에는 '고'와 같은 조사가 쓰인다. 한편 안긴문장의 한

2) [국어사] 54번과 중복 지문

요소가 안은문장의 요소와 동일한 경우 생략될 수 있으며, 하나의 안긴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안기기도 한다. 중세국어의 문법 자료에서도 겹문장이 확인된다. 이어진문장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결합되는데, 현대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어미가 붙어 성립되기도 하였다. 안은문장의 경우 명사절이 '-음/-음'이나 '-디', '-기'에 기대어 나타났으며, 관형절은 '-(으)ㄴ' 외에 '스'에 기대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부사절은 현대국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인용절이나 서술절은 조사나 어미와 같은 표지 없이 나타났다.

42.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8년 4월 14번, 41%]

〈 보 기 〉

- ㄱ. 잘 다져진 음식은 아이가 먹기에 알맞다.
- ㄴ. 나는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음을 알았다.
- ㄷ. 운동장을 달리는 나에게 그가 발뺌을 조심하라고 외쳤다.

- ① ㄱ은 ㄴ과 달리, 명사절에 조사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 ② ㄴ은 ㄱ과 달리, 부사절이 사용되어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 ③ ㄷ은 ㄴ과 달리, 다른 사람의 말을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 인용한 절이 있다.
- ④ ㄱ과 ㄷ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ㄴ과 ㄷ은 모두 하나의 안긴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안겨 있다.

43. ㉠ ~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년 3월 14번, 36%]

- ㉠ 내가 빌린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
- ㉡ 우리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극장에 도착했다.
- ㉢ 피아노를 잘 치는 영수는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
- ㉣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숙였음이 드러났다.

- ① ㉠, ㉢에는 모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 ㉢에는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의 안긴문장에는 부사어가 없지만, ㉣의 안긴문장에는 부사어가 있다.
- ④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 ㉣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담 화]

[어 문 규 범]

44.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년 4월 B형 15번, 65%]

< 보 기 1 >

지칭어와 호칭어, 높임 표현이 발달한 우리말에서는 특히 담화 상황에서 화자, 청자,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그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인 지칭어와 그 대상을 직접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인 호칭어를, 화자와 청자, 담화에 언급된 대상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또한 높임 표현은 청자나 담화 속 주제와 객체의 높임 관계를 고려하여 어미, 조사, 어휘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 보 기 2 >

혜연: 삼촌, 어서 오세요. 좀 늦으셨네요?
삼촌: 생각보다 차가 밀리더구나. 다들 오셨니?
혜연: 아니요. 차가 밀리는지 ㉠할머니께서도 아직 도착하지 못하셨어요.
삼촌: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혜연: ㉢할아버지를 모시고 조금 전에 결혼식장에 들어가셨어요.
삼촌: 아침부터 너희 ㉣어머니께서 많이 바쁘셨겠네. 너도 언니 결혼식 때문에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느라 힘들었지?
혜연: 아니에요. 그것보다 삼촌께서 이렇게 멀리서 와 주셔서 ㉤언니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 ① ㉠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하여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군.
- ② ㉡에서 문장의 주체는 화자가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특수한 어휘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군.
- ③ ㉢에서 문장의 객체는 화자가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조사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군.
- ④ ㉣에서는 화자가 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하여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군.
- ⑤ ㉤에서는 청자가 화자보다 높은 대상이므로 종결어미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군.

45. <보기>를 바탕으로 ㄱ~ㄴ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6년 10월 14번, 66%]

< 보 기 >

한글 맞춤법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예 이것은 책이오. / 이것은 책이 아니오.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오'는 '이요'로 적는다.
예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선생님의 설명: 제15항 [붙임 2]에서 설명하는 어미 '-오'는 하오체 종결 어미입니다. 이 어미 '-오'는 [오]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가 '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이오'로 활용할 때, '차(車)'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는 경우 '차이오→차요'와 같이 '-이오'가 '-요'로 줄어 쓰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오'가 줄어든 형태인 '-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와 그 형태나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언어생활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제시된 자료를 분석해 봅시다. 단, ㄱ과 ㄴ은 모두 말하는 도중에 상대 높임의 등급을 바꾸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ㄱ. 이것은 들뜬이요, 저것은 하늘이오.
ㄴ. 선배: 고향이 어디니? / 후배: 서울요.
ㄷ. (고향을 묻는 물음에 대한 답) 부산이오.
ㄹ. 무얼 좋아하시오? 소설이오? 아니면 영화요?
ㅁ. 무얼 좋아하세요? 소설요? 아니면 영화요?

- ① ㄱ의 밑줄 친 '이오'는 [이요]로 발음할 수 있다.
- ② ㄴ의 밑줄 친 '요'를 '이요'로 바꾸어 적을 수 있다.
- ③ ㄷ의 밑줄 친 '부산이오'는 하오체 문장에 해당한다.
- ④ ㄹ의 밑줄 친 '요'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이오'가 줄어든 형태에 해당한다.
- ⑤ ㅁ의 밑줄 친 '요'는 둘 다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에 해당한다.

4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한글 맞춤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2018년 3월 12번, 56%]

< 보 기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예** 가꿈, 어찌
2. 'ㄴ, ㄹ, ㄹ,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예** 잔뜩, 훨씬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국수, 몹시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딱딱	딱딱

- ① 두 모음 사이에 예사소리가 오면 예외 없이 된소리가 되므로 '가꿈'은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 ②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때 규칙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몹시'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 ③ '딱딱'은 '딱딱'으로 적으면 표준 발음이 [딱딱]이 될 수도 있으므로 두 번째 음절 첫소리를 예사소리로 적지 않는다.
- ④ '국수'는 두 번째 음절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지 않더라도 표준 발음인 [국쑤]로 발음되므로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지 않는다.
- ⑤ '잔뜩'은 비음으로 끝난 용언의 어간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했다는 뚜렷한 까닭이 있으므로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국 어 사]

49.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년 3월 15번, 68%]

< 보 기 >

학습 활동	다음 자료를 보고, 중세 국어의 조사에 대해 탐구해 보자.
학습 자료	<p>ㄱ. ㄷ리 즘은 ㄹ래매 비취요미 곁흐니라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침과 같으니라)</p> <p>ㄴ. 네 후(後)에 부테 ㄷ의야 (네가 후에 부처가 되어)</p> <p>ㄷ. 부텃 모미 여러 가짓 상(相)이 ㄹ즈샤 (부처의 몸이 여러 가지의 상이 갖춰져 있으시어)</p> <p>ㄹ. 사스밋 등과 도즈기 입과 눈 (사슴의 등과 도적의 입과 눈)</p> <p>ㅁ. 사르미 모물 득(得)호고 부터를 만나 잇느니 (사람의 몸을 득하고 부처를 만나 있으니)</p>
활동 결과	(가)

- ① ㄱ의 'ㄷ리'와 '비취요미'에서 '이'가 각각 주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② ㄴ의 '네'에서 'ㅣ'가 주격 조사로, '부테'에서 'ㅣ'가 보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③ ㄷ의 '부텃'과 '가짓'에서 'ㅅ'이 모두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④ ㄹ의 '사스밋'과 '도즈기'에는 'ㅣ'가 각각 기준격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⑤ ㅁ의 '모물', '부터를'에는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50~5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5세기 국어의 모음 조화는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비교적 잘 지켜졌다. 한 형태소 내의 모음들을 살펴보면 ‘ㄱ, ㄴ, ㆍ’ 등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ㄷ, ㅌ, ㅡ’ 등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렸다. 중성 모음 ‘ㅣ’는 양성 모음과 어울리기도 하고, 음성 모음과 어울리기도 하였다. 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단어가 형성되거나 체인에 조사가 연결될 때, 용언 어간에 어미가 연결될 때에도 조사나 어미의 첫 모음은 그에 선행하는 모음과 같은 성질의 모음이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목적격 조사는 그에 선행하는 명사의 모음에 따라 ‘을/을, 를/를’ 중 하나가 선택되었고, ‘-은/-은’, ‘-음/-음’, ㉠ ‘-아/-어’와 같은 어미도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에 따라 규칙적으로 선택되었다. 다만, 조사 ‘도’, ‘와/과’나 어미 ‘-고’, ‘-더’ 등은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16세기부터 모음 조화는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ㆍ’의 소실과 관계가 있다. 16세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의 ‘ㆍ’가 소실되면서 주로 ‘ㅡ’에 합류하였다. 첫째 음절에서의 ‘ㆍ’는 여전히 양성 모음이었으나,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ㆍ’ 대신 음성 모음인 ‘ㅡ’가 쓰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체인에 연결되는 ‘은/은’, ‘을/을’, ‘의/의’ 등의 조사는 점차 ‘은’, ‘을’, ‘의’ 등으로 통일되었고, 모음 조화를 지키던 ‘사슴’과 같은 단어들은 ‘사슴’과 같이 모음 조화를 어기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이후 18세기에 첫째 음절에서의 ‘ㆍ’가 주로 ‘ㅏ’에 합류하면서 ‘ㆍ’는 완전히 소실되었고, 국어의 모음 체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모음 조화가 약화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출렁출렁’, ‘출렁출렁’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나 ㉡ 일부 용언의 어간 뒤에 ‘-아/-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50. ㉠과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년 3월 14번, 67%]

	15세기 국어		현대 국어	
	용언 어간	활용형	용언 어간	활용형
①	알-	아라	알-	알아
②	떡-	머거	떡-	떡어
③	씨오-	씨와	깨우-	깨워
④	쁘-	뼈	쓰-	써
⑤	ㄱ득ㅎ-	ㄱ득ㅎ야	가득하-	가득하여

51.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년 3월 15번, 64%]

— < 보 기 > —

(가)

겨스레 소음 둔 오술 님디 아니 흐고 너르메 서늘흐 디 가디 아니 흐며 흐르 발 두 호브로써 죽을 밍글오 소곰과 느물 흘 먹디 아니 흐더라

- 「내훈」 (1447년)에서 -

[현대어 풀이]

겨울에 솜 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름에 서늘한 데 가지 아니하며 하루 쌀 두 홉으로써 죽을 만들고 소곰과 나물을 먹지 아니하더라.

(나)

타락과 초와 장과 소곰과 계즌 ㄱ르와 파과 마늘과 부추와 기름과 댓무우과 외와 가지 등 여러가지 느물과 둥기 알과

- 「박통사언해」 (1677년)에서 -

[현대어 풀이]

타락과 식초와 장과 소곰과 겨자 가루와 파와 마늘과 부추와 기름과 당근과 오이와 가지 등 여러 가지 나물과 닭의 알과

- ① 15세기에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가)의 ‘겨슬’과 ‘흐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② 15세기에는 체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가)의 ‘오술’과 ‘죽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③ 용언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가)의 ‘흐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④ 17세기에는 모음 조화의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나)의 ‘초와’와 ‘파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⑤ 둘째 음절의 ‘ㆍ’가 ‘ㅡ’로 변화하였음을 (가)의 ‘느물’과 (나)의 ‘느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52. <보기>의 ㉠ ~ ㉣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년 4월 B형 16번, 66%]

〈 보 기 〉

㉠ 雙鵬(쌍조) 1 忽 사례 ㉡ 𠵹니 絶世(절세) 英才(영재)를 邊人(변인)이 拜伏(배복) ㉢ 忽스븨니

[현대어 풀이]

두 마리 독수리가 한 살에 께이니, 절세의 영재를 변방의 사람들이 절하며 복종하니

雙鵠(쌍각)이 忽 ㉣ 사례 ㉤ 디니 曠世(광세) 奇事(기사)를 北人(북인)이 稱頌(칭송) 忽사븨니

[현대어 풀이]

두 마리 까치가 한 살에 떨어지니, 세상에 없는 기이한 일을 북녘 사람들이 칭송하니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23장> -

- ① ㉠을 보니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로 ‘1’가 사용되었군.
- ② ㉡을 보니 음절의 초성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사용되었군.
- ③ ㉢을 보니 ‘△’, ‘빙’, ‘·’ 등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문자가 사용되었군.
- ④ ㉣에서 양성 모음 ‘1’와 ‘H’가 어울리는 것을 보니 모음조화가 지켜졌군.
- ⑤ ㉤에서 ‘1’ 앞의 ‘디’이 ‘즈’로 변하지 않은 것을 보니 구개 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군.

53. <보기>의 ㉠ ~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년 4월 B형 16번, 64%]

〈 보 기 〉

千世(천 세)우회 미리 定(정) 忽산 漢水(한수) 北(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 忽샤 卜年(복년)이 ㉠ 𠵹업스지니

聖神(성신)이 니스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 忽사사 더욱

㉡ 구드시리이다

㉢ 𠵹급하 아르쇼서 ㉣ 洛水(낙수)에 山行(산행)가 이셔 하나

빌 ㉤ 미드니잇가

<제125장>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세종 29년) -

[현대어 풀이]

천 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여러 대를 물린 어진 임금이 나라를 여[開]시어 왕조가 끝이 없으시니, 성신(聖神)이 대를 이으시어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섬겨야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임금이시여,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을 가 있으면서 할 아버지를 믿으시겠습니까?

- ① ㉠: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자음과 모음이 사용되었다.
- ② ㉡: 선어말어미 ‘-이’는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 ③ ㉢: 조사 ‘하’는 부르는 대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 ④ ㉣: ‘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⑤ ㉤: 어간의 받침을 어간의 중성과 어미의 초성으로 겹쳐 표기하였다.

[5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³⁾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홀문장과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곁문장으로 나뉘는데, 곁문장에는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이 있다.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대등하게 혹은 종속적으로 결합된 문장을 말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 뒤 문장이 ‘나열’, ‘대조’ 등의 대등한 의미 관계를 가지며, ‘-고’, ‘-지만’ 등의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 조건, 목적 등의 의미를 가지며, ‘-아서 / -어서’, ‘-(으)면’, ‘-(으)러’ 등의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다.

한 문장이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하는 다른 문장을 안고 있을 때 그것을 안은문장이라 하고, 이때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하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 한다. 안긴문장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명사절은 ‘-(으)ㄴ’, ‘-기’가 붙어 만들어지며 문장 안에서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목적어, 부사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 관형절은 ‘-(으)ㄴ’, ‘-는’, ‘-(으)러’ 등이 붙어 뒤의 체언을 꾸민다. 부사어처럼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부사절은 ‘-이’, ‘-게’, ‘-도록’ 등이 결합하

3) [문장] 42번과 중복 지문

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은 다른 절들과 달리 특별한 표지(標識)가 붙지 않는다. 끝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 등을 인용한 것을 인용절이라고 하는데,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직접 인용절에는 '라고'나 '하고'와 같은 조사가,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 인용하는 간접 인용절에는 '고'와 같은 조사가 쓰인다. 한편 안긴문장의 한 요소가 안은문장의 요소와 동일한 경우 생략될 수 있으며, 하나의 안긴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안기기도 한다.

중세국어의 문법 자료에서도 겹문장이 확인된다. 이어진문장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결합되는데, 현대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어미가 붙어 성립되기도 하였다. 안은문장의 경우 명사절이 '-음/-음'이나 '-디', '-기'에 기대어 나타났으며, 관형절은 '-(으)니' 외에 '-스'에 기대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부사절은 현대국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인용절이나 서술절은 조사나 어미와 같은 표지 없이 나타났다.

5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년 4월 15번, 64%]

< 보 기 >

(가)
[중세] ㅁ술히 멀면 乞食ᄃ디 어렵고
[현대어 풀이] 마을이 멀면 걸식하기 어렵고
 - 「석보상절」 -

(나)
[중세] 이 東山은 남기 도ᄃᄃ찌 노니는 짜히라
[현대어 풀이] 이 동산은 나무가 좋으므로 내가 노니는 땅이다.
 - 「석보상절」 -

(다)
[중세] 불취 기픈 남ᄃᄃ 버ᄃᄃ매 아니 뵈ᄃᄃ 곳 도코 여름 하느니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 「용비어천가」 -

- ① (가)의 '乞食ᄃ디'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명사절을 만들 때 '-디'가 사용되었군.
- ② (나)의 '남기 도ᄃᄃ찌'가 '이 東山'의 서술어로서 기능하는 것을 보니 중세국어에서도 서술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다)의 '곳 도코'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 때 '-고'를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가)의 'ㅁ술히 멀면'과 (다)의 '불취 기픈'을 보니 '-(으)니'이 붙어 관형절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나)의 '도ᄃᄃ찌'와 (다)의 '뵈ᄃᄃ'를 보니 현대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해 주는 표지가 사용되었군.

[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언은 문장에서 사용될 때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때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그 뒤에 붙어서 변화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어간에 다양한 어미들이 결합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씻다'처럼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거나, '쓰다'처럼 활용할 때 기본 형태가 달라진다 해도 그 현상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를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반면 특정한 환경이나 조건에서 불규칙적으로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불규칙 활용은 '싣다'와 같은 'ㄷ' 불규칙, '짓다'와 같은 'ㅅ' 불규칙, '뚫다'와 같은 'ㅂ' 불규칙, '푸다'와 같은 '우' 불규칙처럼 어간이 바뀌는 경우, '하다'와 같은 '여' 불규칙처럼 어미가 바뀌는 경우, '파랗다'와 같은 'ㅎ' 불규칙처럼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용언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은 중세 국어 용언의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할 때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쁘다'가 '뻐'처럼 활용하는 'ㅡ' 탈락이 있는데 이는 현대 국어의 'ㅡ' 탈락에 대응한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 '싣다'의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싣-',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실-'로 교체되는 현상은 현대 국어의 'ㄷ' 불규칙으로 이어진다. '뚫다'와 '짓다' 역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뚫-'과 '짓-'으로 교체된다. 이러한 교체는 '빙'이 'ㅂ' 또는 'ㄱ' 앞에서 반모음 'ㅇ/ㅍ[w]'로 변화하거나 'ㅛ' 또는 'ㅡ'와 결합하여 'ㅇ' 또는 'ㅌ'로 바뀌어 현대 국어에서 'ㅂ' 불규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ㅅ'은 소실되어 현대 국어에서 'ㅅ' 불규칙으로 나타난다. 또한 어간 이거나 어간의 일부인 'ㅎ'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어미가 '-야'가 아닌 '-야'로 나타나는 것은 현대 국어의 '여' 불규칙으로 이어진다.

5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9년 7월 14번, 64%]

< 보 기 >

<p>(가) 중세 국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뎡 德을 놀애 지셔 ○ 人生 즐거븐 쁘디 ○ 一方이 변ᄃᄃ야 	<p>(나) 현대 국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의 덕(德)을 노래로 지어 인생(人生) 즐거운 뜻이 일방(一方)이 변하여
---	---

- ① (가)의 '지셔'는 '짓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ㅈ-'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즐거븐'은 '즐겁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즐꺄-'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의 '지셔'가 (나)에서 '지어'로 나타나는 것은 'ㅅ'이 소실된 결과이군.
- ④ (가)의 '즐거븐'이 (나)에서 '즐거운'으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탈락한 결과이군.
- ⑤ (가)의 '변ᄃᄃ야'와 (나)의 '변하여'는 모두 활용을 할 때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진 것이군.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4)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용언이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이다.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는 ‘-(으)ㄴ’, ‘-는’, ‘-(으)ㄹ’ 등으로, 이들이 용언의 어간에 붙으면 관형절이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관형절은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분류된다.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속의 한 성분으로 쓰일 수 있으면 관계 관형절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격 관형절이다. 한편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문장의 종결 어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관형절과, 그렇지 않은 관형절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현대 국어에서처럼 관형절을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구분할 수 있다. 중세 국어의 대표적인 관형사형 어미는 ‘-(으)ㄴ’과 ‘-(으)ㄹ’로, 각각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관형절에서 현재 시제는 동사의 경우 ‘-ㄴ’ 앞에 선어말 어미 ‘-ㄴ-’을 붙여 나타냈다. 예컨대 ‘八姪女の 기론 찻쁘리 모즈랄쌔(팔채녀가 길은 찻물이 모자라쁘로)’에서 ‘八姪女の 기론’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난 관계 관형절이고, ‘주글 짜르미어니(죽을 사람이니)’에서 ‘주글’은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난 관계 관형절이다. 그리고 ‘本來 求호는 밋슴 업다이다(본래 구하는 마음 없었습니다)’에서 ‘本來 求호’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가 나타난 동격 관형절이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와 달리 ‘-ㄴ’이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도 있었다. 곧 ‘-ㄴ’이 붙은 절 뒤에 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없는 상태로, ‘그뫓 혼 초초(그대 한 것 좇아)’에서 ‘그뫓 혼’을 예로 들 수 있다. ‘혼’[ㅎ-+-오-+-ㄴ]에서 선어말 어미 뒤에 쓰인 ‘-ㄴ’은 ‘~ㄴ 것’ 정도로 해석된다. 더 붙어 ‘威化 振旅 호시느로(위화도에서 군대를 돌이킨 것으로)’에서처럼 명사절을 이끄는 ‘-ㄴ’ 뒤에 조사가 붙은 경우도 있었다. ‘호시느로’[ㅎ-+-시-+-ㄴ+오]는 ‘-ㄴ’ 바로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는 예이다.

56. 윗글을 바탕으로 a~c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년 10월 12번, 60%]

- a. 福이라 호닐[ㅎ-+-오-+-ㄴ+을] 나스라
(복이라 한 것을 바치려)
- b. 智慧 너비 비첵[비취-+-ㄹ] 느지오
(지혜가 널리 비칠 조짐이오)
- c. 法 즐기논[츄-+-아-+-ㄴ-+-ㄴ] 밋슴미 잇던덴
(법 즐기는 마음이 있더라면)

- ① a의 ‘호닐’에서 조사가 어미 ‘-ㄴ’ 바로 뒤에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a의 ‘호닐’에서 ‘-ㄴ’은 ‘~ㄴ 것’으로 해석되며 명사절을 이끄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b의 ‘비첵’에서 ‘-ㄹ’을 통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b와 c에서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절 뒤에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b와 c에 있는 관형절은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속의 한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4) [문장] 38번과 중복 지문

[5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높임법이라 한다. 높임법은 높임이나 낮춤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누어진다.

주체 높임법은 화자가 문장의 주어인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임이 실현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서’에 의해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기도 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도 주로 ‘-시-’와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유사하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드리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 등을 통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통해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으며, ‘-습-’은 앞뒤의 음운적 환경에 따라 ‘-습-, -줍-, -술-, -술-, -줍-’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 국어와 같이 특수한 어휘들이 사용되어 객체 높임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을 일컫는다. 현대 국어에서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에 의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종결 표현이나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 -잇-’ 등을 통해 실현되었다.

5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년 4월 14번, 54%]

— < 보 기 > —

- 仁義之兵(인의지병)을 遼左(요좌) | ㉠ 깃스불니
[현대어 풀이] 인의의 군대를 요동 사람들이 기뻐하니
- 聖孫(성손)이 ㉡ 怒(일노) 호시니 六百年(육백년) 天下(천하) | 洛陽(낙양)에 ㉢ 올므니이다
[현대어 풀이] 성손(무왕)이 한번 노하시니 육백 년의 천하가 낙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 聖宗(성종)을 ㉣ 뫓셔 九泉(구천)에 가려 하시니
[현대어 풀이] 성스러운 어른을 모시고 저승에 가려 하시니
- 하늘히 駙馬(부마) 달애샤 두 孔雀(공작)일 ㉤ 그리시니이다
[현대어 풀이] 하늘이 부마를 달래서 두 공작을 그리신 것입니다.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 ①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선어말 어미 ‘-습-’을 사용하여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聖孫(성손)’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청자를 높이기 위해 ‘-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서술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은 선어말 어미 ‘-시-’와 ‘-이-’를 사용하여 각각 문장의 주체와 청자인 상대방을 모두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년 7월 B형 16번, 53%]

	<p>중세 국어의 ‘-습-/습-/습-’은 객체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시-’, 상대 높임은 선어말 어미 ‘-이-’를 사용하여 나타냈다. 또한 높임의 뜻을 가진 어휘로 높임이 실현되기도 했다.</p>
학습 자료	<p>[중세 국어] 聖子를 내㉠신니㉡이다 [현대 국어] (하늘이) 聖子(성자)를 내셨습니다.</p> <p>[중세 국어] 世尊尊人 安否安否 문㉢잡고 [현대 국어] 世尊(세존)의 安否(안부)를 여쭙고</p> <p>[중세 국어] ㉣진지 오를 제 받드시 [현대 국어] 진지 올릴 때 받드시</p>
학습 활동	<p>㉠~㉣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정리해 보자. (_____ [가] _____)</p>

- ① ㉠: 주체인 ‘聖子(성자)’를 높이는 ‘-시-’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 ② ㉡: 상대를 높이는 ‘-이-’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③ ㉢: 객체를 높이는 ‘-잡-’이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④ ㉣: ‘받’을 높여서 이르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 ⑤ ㉠+㉡: 주체와 상대에 대한 높임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는 음절의 중성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다. 음절의 중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 모두 예사소리 ‘ㄱ, ㄷ, ㅂ’으로 교체되고, 음절의 중성에 자음군이 올 때는 한 자음이 탈락한다.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앞 음절의 중성에 있던 자음이 곧바로 연음된다. 이렇게 연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

연음이 일어나는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다른 현상이 일어나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ㄷ, 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ㄷ, ㅌ’이 ‘ㅌ, ㅌ’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또한 용언 어간 말음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연음되지 않고 탈락한다. 용언 어간 말음 ‘ㅎ’ 뒤에 ‘ㄱ, ㄷ, 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ㅎ’과 ‘ㄱ, ㄷ, ㅌ’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데 이를 통해 용언 어간 말음 ‘ㅎ’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로 알 수 있다.

연음과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중세 국어 자료를 검토해 보면 현대 국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는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중세 국어 자료를 살펴보면 ‘돌(돌)’, ‘나라(나라)’와 같이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국어 시기에는 체언 말음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나라히’와 같이 연음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 ‘과’, ‘도’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 ‘ㅎ’이 뒤에 오는 ‘ㄱ, ㄷ’과 축약되어 ‘크, ㅌ’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서 ‘ㅎ’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체언이 ‘ㅎ’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시’와 결합하여 쓰였을 때는 ‘ㅎ’이 실현되지 않아서 ‘ㅎ’을 말음으로 가지지 않은 체언과 구별되지 않았다. 해당 체언이 연음이나 축약이 일어나는 자리에 쓰인 사례를 검토해야 체언 말음 ‘ㅎ’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

59. [A]를 참조하여 <보기>의 ㉠~㉣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2019년 3월 12번, 46%]

— < 보 기 > —

[학습 목표]
중세 국어 자료를 통해 체언 ‘하늘’에 대해 탐구한다.

[중세 국어 자료]

- ㉠ 하늘히 ㅌ스물 뉘우시니 (하늘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니)
- ㉡ 하늘 光明中에 드러 (하늘의 광명 가운데에 들어)
- ㉢ 하늘 섬기습듯 ㅎ야 (하늘 섬기듯 하여)
- ㉣ 하늘토 뉘며 (하늘도 움직이며)
- ㉤ 하늘과 싸파를 니르니라 (하늘과 땅을 이르니라)

- ① ㉠에서는 연음되어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없지만, ㉡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는 ‘ㅎ’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다.
- ③ ㉢에서는 체언 말음 ‘ㅎ’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에서는 체언 말음 ‘ㅎ’의 존재를 알 수 없다.
- ④ ㉢와 ㉣에서 동일한 체언이 단독으로 쓰일 때, 서로 다른 형태로도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와 ㉤에서 체언에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조사 ‘토’, ‘파’가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의 저작권은 임권의T(히파27)에게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무료 배부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로, 2차 저작물에 활용/배포 등의 활동을 금지합니다.

교육청 문법 고난도 문제 모음(13년도~20년도)

국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1	⑤	11	②	21	③	31	⑤	41	④	51	④
2	③	12	①	22	①, ③	32	②	42	⑤	52	①
3	④	13	④	23	④	33	⑤	43	①	53	⑤
4	①	14	③	24	①	34	①	44	③	54	④
5	③	15	②	25	③	35	④	45	②	55	④
6	③	16	①	26	①	36	⑤	46	④	56	⑤
7	③	17	④	27	①	37	⑤	47	④	57	④
8	⑤	18	⑤	28	②	38	④	48	④	58	①
9	⑤	19	③	29	②	39	①	49	④	59	①
10	④	20	③	30	①	40	④	50	⑤		